

휘발유 판매가격 내려갈까?

3월30일 현물 전자상거래 개장 ... 150사 참여 인터넷거래

한국거래소는 3월30일 오후 4시 부산 본사에서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개장식을 열었다.

개장식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공사, 수출입업자 10개, 일반대리점 30개, 주유소 100개 등 150개 정도가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기업들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를 거래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주유소 등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수급을 반영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 유가 안정과 석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30>